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地域經濟의 現況과 課題

指導教授 朴 龍 炯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 宗 昊

1988年度

濟州地域經濟의 現況과 課題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金 宗 昊


指導教授 朴 龍 炯


1988年 月 日

金宗昊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8年 月 日

 제주主학 審중인 金恒元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副 審 宋成太 

副 審 朴龍垞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序 論	9
II. 濟州地域經濟의 全般的 現況	11
1. 人口 및 就業構造	11
2. 賦存資源	14
3. 地域總生産	16
4. 財政	19
5. 其他	22
III. 濟州地域經濟의 産業別 現況	23
1. 1次産業의 現況	23
2. 2次産業의 現況	37
3. 3次産業의 現況	40
IV. 濟州地域經濟의 課題	51
1. 地域經濟의 全般的 課題	52
2. 1次産業의 課題	54
3. 2次産業의 課題	57
4. 3次産業의 課題	58
V. 要約 및 結論	60

○참고문헌

○ABSTRACT

表 目 次

〈표1〉 전국·제주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12
〈표2〉 전국·제주 총생산 비교	17
〈표3〉 전국·제주 산업별 1인당 생산액	18
〈표4〉 도시군 세입·세출결산총괄	20
〈표5〉 도시군별 일반·특별회계과목별 세출결산상황	21
〈표6〉 제주도의 강지이용현황	25
〈표7〉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26
〈표8〉 감귤생산 및 유통처리실적	28
〈표9〉 가축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31
〈표10〉 임산물 생산실적	33
〈표11〉 어선보유현황	34
〈표12〉 종별지정어항현황	35
〈표13〉 수산기반시설현황	36
〈표14〉 수산물생산실적	37
〈표15〉 2차산업 사업체현황	38
〈표16〉 산업별 종업원1인당 부가가치	39
〈표17〉 관광지별 관람인원	41
〈표18〉 관광객 및 관광수입	43
〈표19〉 자동차 운수사업체현황	44
〈표20〉 금융기관별 예금·대출금현황	46
〈표21〉 숙박시설현황	48
〈표22〉 건축허가현황	50

I. 序 論

濟州地域經濟는 韓國經濟가 본격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실현하였다. 1976~1986년 기간 중 제주지역 경제의 연평균 성장율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전국평균 20.0%를 넘는 23.5%의 고도 성장을 유지하였고, 1980~1986년 기간 중에도 전국평균 14.9%를 훨씬 앞지르는 19.8%를 기록하였다.

또, 濟州地域經濟(GRP)는 전국 國民總生産(GNP)의 1.1%를 차지하고 있고(1986년 현재), 1人當 GRP는 1976~1986년 기간 중 꾸준히 증가하여 같은 기간의 전국 1人當 GNP의 73.1%에서 90.3%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경제가 2次産業의 수출증대에 주로 의존하여 그간의 무리한 중화학공업화정책과 해외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출의 둔화, 그 밖에 정치적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데 비하여, 濟州地域經濟는 감귤, 관광 등 1次 및 3次産業에 그 성장을 주로 의존하였고, 또 이들 산업의 본토와의 교역이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여온 데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¹⁾

그러나, 濟州地域經濟는 自然的 條件에 의해서 결정되는 1次産業의 成長限界와 域外依存도가 높은 여러가지 개발계획이 갖는 한계와 부작용 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성장전망은 심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간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1차산업은 감귤가격의 하락, 수산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또 자연자원을 제외한 人的·物的資源의 상당부분을 域外로부터 들여와야 했던 이 지역의 여러가지 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外地人에 의한 부동산투기, 전통적 가치관의 상실, 주민의 피해의식증대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지역경제는 1次, 3次産業의 高度成長을 가능케 했던 域內的 自然的·人文的 環境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지난날과 같은 成長을 기

1) 南宗鉉, 「地域經濟發展패턴과 濟州道の 産業開發展望」, 韓國長期信用銀行, 高麗大 學校 經濟研究所, 1984. p. 7.

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제주지역경제의 成長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유리한 여건이 造成되길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成長可能한 여건을 造成하고 多角的인 成長方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本 研究는 제주지역경제에 관한 文獻들과 統計資料들을 通하여 지난 10여년간의 제주지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제주지역경제의 成長이 지속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제Ⅱ장에서는 濟州地域의 人口와 就業構造, 賦存資源, 地域總生産, 財政 等の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濟州地域의 1次, 2次, 3次産業의 현황을 파악하여, 제Ⅳ장에서는 제주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基本的 課題를 제시한 다음,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要約하고 結論을 맺으려 한다.

본 연구에 引用된 統計數值들은 대부분 「濟州統計年報」와 「濟州經濟現況」에 根據하고 있으며, 그러한 統計數值들 가운데 出處를 생략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밝혀둔다.



II. 濟州地域經濟의 全般的 現況

地域經濟란 「하나의 國民經濟를 形成하는 地理的 分割 單位로서의 空間經濟」를 말한다. 즉, 國民經濟의 活動영역을 生産, 消費活動 또는 流通體系 등을 기준으로 하여 國土를 劃정한 空間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와같이 동일한 國民經濟체계 안에서 지역경제를 구분하여 다루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生産要素가 달리 분포되어 있고, 이들이 지역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간에 소득수준과 생산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地域經濟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있다.²⁾

行政單位로서의 濟州道는 本土와 地理的으로 뚜렷이 區分되고, 生産要素의 분포나 生産·消費活動 등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물론 統計資料의 利用을 위해서도 行政單位로서의 濟州道를 地域經濟單位로 삼기로 한다.

1. 人口 및 就業構造

1987년 11월 1일 현재 濟州도의 인구는 123,639家口에 502,534名으로서, 이 중 남자가 245,306名, 여자는 257,228名으로 여자가 많고, 家口當 平均 人口數는 4.1名이며, 人口密度는 每當 275名이다.³⁾

<표1>을 보면, 1970년대 후반에 濟州지역인구의 年평균 증가율은 2.7%로 같은 기간 전국인구의 年평균 증가율 1.5%를 훨씬 넘는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1980년대 전반에는 오히려 전국의 1.3%를 밑도는 1.0%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이르는 동안 濟州地域 綜合觀光開發計劃이 確定 實

2) 金泰保, 「濟州地域經濟의 構造의 特性과 産業開發戰略에 대한 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8집(사회편), 1984. p. 335.

3) 濟州상공회의소, 「商議現況」, 1988.

(표1) 전국·제주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

연도	전국		제주		경제활동인구		취업률		전국산업별구성비			제주산업별구성비		
	인구 (천명)	증가율 (%)	인구 (천명)	증가율 (%)	전국	제주	전국	제주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976	35,849	1.61	420	2.14	57.9	70.5	96.1	99.5	44.6	21.8	33.5	79.6	3.2	17.2
1977	36,412	1.57	431	2.63	57.6	68.2	96.2	99.4	41.8	22.4	35.8	85.2	3.0	11.8
1978	36,969	1.53	433	2.73	58.0	66.1	96.8	99.7	38.4	23.2	38.4	78.3	3.1	18.6
1979	37,534	1.53	457	2.99	57.6	65.7	96.2	99.8	35.8	23.7	40.5	77.6	3.1	19.3
1980	38,124	1.57	462	1.30	59.0	62.7	94.8	99.8	34.0	22.6	43.4	68.6	5.3	26.1
1981	38,723	1.56	467	1.07	58.5	65.7	95.5	98.6	34.2	21.3	44.5	71.8	3.2	25.0
1982	39,326	1.53	474	1.30	58.6	57.8	95.6	97.9	32.0	21.9	46.1	50.4	4.2	45.4
1983	39,929	1.46	477	0.82	57.7	61.0	95.9	98.2	29.7	23.3	47.0	60.0	3.3	36.7
1984	40,513	1.34	482	0.87	55.8	58.0	96.2	97.7	27.1	24.2	48.7	60.7	3.1	36.2
1985	41,056	1.25	489	1.52	56.6	58.1	96.0	98.2	24.9	24.5	50.6	60.1	3.4	36.5
1986	41,569	1.24	496	1.33	57.1	58.3	90.2	98.3	23.6	25.9	50.5	58.2	3.1	38.7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施되고 감골원이 조성되어 陸地에서 産業人口가 流入한 탓이었으나 1980년부터 개발붐이 줄어들고 전국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⁴⁾ 이러한 제주지역인구의 증가추세는 1985년 이후 다시 전국수준 1.2%를 약간 넘는 1.4%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는 인구의 社會的 增加 보다는 自然增加에 기인하고 있다.⁵⁾

이러한 인구변동은 제주지역이 필요로 하는 産業人口의 供給이 域內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人口의 社會的 移動이 生活水準이 높고 就業機會가 많은 地域으로 流入된다고 볼 때, 제주지역인구의 流出이 流入을 앞지르고 있고 域內人口의 自然增加率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陸地部에 비해 이 지역이 生活水準이나 就業機會 면에서 不利한 실정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제주지역인구의 經濟活動參加率과 就業率, 産業別人口構成比를 살펴보면(표 1참조),

첫째, 1976~1981년 중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65%를 훨씬 넘었으나 1982년 이후에는 전국수준인 57%와 비슷한 58%로 떨어지고 있어,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기 꾸준히 감소해왔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둘째, 1976~1986년 기간중에 이 지역의 취업율은 98%를 꾸준히 유지하여 같은 기간의 전국의 취업률 95~96%를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1次産業人口가 전체의 58%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不完全 就業人口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주지역의 産業別人口構成比는 全國의 경우와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76년 全國의 산업별 인구구성비는 1次, 2次, 3次産業에 각각 44.6%, 21.8%, 33.5%였고, 제주지역은 각각 79.6%, 3.2%, 17.2%였는데, 그후 全國의 경우 1차산업인구를 2차, 3차산업에서 흡수한데 비하여 제주지역에서는 1차산업인구를 3차산업에서만 흡수했을 뿐 2차산업에서는 전혀 흡수치 못했음을 알 수

4) 崔相哲, 「濟州地域經濟發展過程 및 現況」, 「地域經濟發展硏究과 濟州道의 産業開發展望」, 韓國長期信用銀行, 高麗大學校 經濟硏究所, 1984, p. 58.

5) 주민등록상의 流出入 人口를 보면 域內 流入人口보다 域外 流出口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통계연보」, 1987.

있다. 그리하여 1986년 현재 전국의 산업별인구구성비는 1次, 2次, 3次産業에 각각 23.6%, 25.9%, 50.5%인데 비하여, 제주지역의 경우는 각각 58.2%, 3.1%, 38.7%로 나타나고 있다.

2. 賦存資源

賦存資源란 自然資源을 뜻하며, 地下資源과 地表資源, 土地, 및 環境 등을 말한다.⁶⁾ 제주지역은 地下資源이 전혀 없고, 地表資源과 土地 등은 賦存量이 많지는 않지만, 지형이나 지질, 기후 등이 他地域이 갖지 않은 特異함을 간직하고 있고, 四面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제주지역은 지리적·지형적 여건에 따라 비교적 多種多樣한 지표자원을 갖고 있다. 즉, 위도상으로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섬 중앙에는 1950m의 한라산이 솟아 있어 지역과 고도에 따라 다른 식물 분포를 보이고 있고, 해양성 기후와 계절풍 기후가 동시에 나타나 이러한 다양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局地性은 농작물 재배에도 작용하여 지역에 따라 作付體系를 달리하게 하고 있다.⁷⁾

제주지역의 面積은 1,825km²로 남북한 전체면적의 0.8%, 남한면적의 1.8%에 해당하며, 인구밀도는 1987년 현재 km²당 275명으로 남한의 419명(1986년 기준)보다 훨씬 적다. 제주지역의 토지이용을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의 면적은 싱가포르(618km²)와 홍콩(1,064km²)의 면적을 합친 것 보다 넓고 인구밀도는 싱가포르(1,999명)와 홍콩(4,923명)에 비해 훨씬 적어 제주지역의 토지자원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의 용도별 구성을 보면 제주도는 도시지역 230km², 농지 430km², 과수원 90km², 임야 1,084km²이고, 싱가폴은 618km² 중 도시화지역 290km², 농지 68km², 산지 29km², 기타 232km²이고, 홍콩은 1,064km² 중 도시화지역 170km², 농지

6) 宋丙洛, 「韓國經濟論」, 박영사, 1986. p. 653.

7) 吳現道, 「濟州農業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통권 제80호, 1986. 6. p. 62.

37km, 산지 750km, 기타 90km 등이다.⁸⁾ 이렇게 보면 제주지역은 비교적 넓은 土地空間을 갖고 있어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지역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外地人에 의한 投機的 土地所有는 政策的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제주도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짧은 타원형의 화산섬으로 중앙에 1,950m의 화산이 솟아 있고 곳곳에 360여기의 기생화산이 산재해 있어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방이 3'~7'의 사면을 이루며 水系 역시 사방으로 뻗어 있다. 용암류가 많이 흐른 북서쪽과 북동쪽에는 용암굴이 많고, 남쪽과 북쪽으로 많이 형성된 하천들은 평소 물이 흐르지 않는 乾川이며,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 중에는 粗面岩의 柱狀節理와 폭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해안선은 단조롭고 해안 곳곳에는 현무암의 단애나 현무암초가 많다. 용암층 밑을 흐르는 지하수는 해안지대에 이르러 湧出되며 이를 식수로 이용하게 되어 대부분의 취락이 해안지대에 형성되고 있다.⁹⁾

한편 제주도는 화산도로서 그 지질이 조면암, 粗面質 安山岩, 현무암 및 약간의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95%가 현무암이다.¹⁰⁾

이러한 지형적·지질적 특이성은 産業發展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그간의 地域開發事業의 추진으로 훌륭한 産業資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즉, 경사가 심한 지형적 조건, 빈약한 수자원, 메마른 土質 등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한라산을 중심으로 散在해 있는 기생화산, 용암굴, 계곡, 절벽과 폭포 등은 觀光資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수가 충분히 조사, 보호,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어 앞으로 이들을 조사, 보호,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제주도는 해양성 기후와 계절풍 기후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섬 중앙에 높은 산이 있어 국지적으로 일기 변화가 많고 바람이 심하다. 겨울철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 난대성 식물의 성장이 가능하다. 7~8월에 강수량이 집

8) 宋丙洛, "지역경제발전패턴의 국제비교분석", 「지역경제발전패턴과 제주도의 산업 개발 전망」, 한국장기신용은행,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p. 269.

9)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7.

10) 崔相哲, 전제논문, p. 44.

중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연중 고른 강수량 분포를 보인다. 겨울철에 제주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조시수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기후조건들 가운데는 농업에 불리한 점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 감귤, 겨울채소류, 시설재배작물 등을 재배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여건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四面에 水深 100m를 넘지 않는 바다를 끼고 있고, 연근해에는 난류와 沿岸水 등이 흐르는 좋은 어장을 갖고 있으며, 얕은 바다에는 해조류와 패류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고 있어 水産業이 일찍부터 발달하였고¹¹⁾, 海域에 散在해 있는 有無人島와 신비로운 海底景觀 등은 觀光資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한편, 中國과 日本, 東南아시아 地域을 잇는 中間基地로서의 濟州道の 重要性도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地域總生産

지역총생산(GRP)이란 일정지역내에 居住하는 者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同 생산과정에서 廢損된 고정자산의 소모분을 포함한 개념이다.¹²⁾ 즉, 지역총생산은 수출용 재화생산의 부가가치와 지역적 소비 및 자본형성을 위한 재화생산의 부가가치를 합한 것과 같고, 餘他地域으로의 재화판매액과 지방소비자의 재화 구입액 및 지방기업의 자본재 구매액을 합한 것에서 최종재 및 중간재 수입액을 뺀 것이 된다.¹³⁾

또 이를 지역내 총인구수로 나눈 것을 1인당 지역총생산이라 한다. 따라서 지역총생산은 국가에서의 國內總生産(GDP)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겠는데, 제주지역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생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참조)

11) 高有峰, "濟州水産業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 통권 제80호, 1986. 8. p. 71.

12) 洪起容, 「地域經濟論」, 박영사, 1985, p. 221.

13) 余泰保, "제주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산업개발전략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8집(사회편), 1981, p. 338.

〈표2〉 전국·제주 총생산 비교

(경상가격)

연 도	전국GNP (10억원)	증가율 (%)	제주GRP (10억원)	증가율 (%)	전국1인당 GNP(천원)	증가율 (%)	제주1인당 GRP(천원)	증가율 (%)
1976	13,818	37.3	120	8.7	385	32.8	284	6.4
1977	17,729	28.3	166	38.9	486	26.3	382	34.5
1978	23,937	35.0	228	34.9	647	33.0	514	34.5
1979	30,741	28.4	274	19.9	819	26.5	599	16.4
1980	36,672	19.3	337	22.9	980	19.7	727	21.3
1981	45,126	23.1	465	38.0	1,165	18.9	992	36.5
1982	50,725	12.4	503	8.3	1,289	10.7	1,061	7.0
1983	58,986	16.3	612	21.6	1,477	14.5	1,279	20.6
1984	66,408	12.6	704	15.1	1,639	11.0	1,459	14.1
1985	72,850	9.7	823	20.0	1,774	8.2	1,681	15.2
1986	83,833	15.1	954	15.9	2,016	13.7	1,923	14.3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1976년 제주지역총생산은 전국의 國內總生産의 0.96%에서 1986년에는 1.14%로 약간 증가하여 953억원을 기록하였다. 즉, 1976~1986년 기간 중 제주지역총생산은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연평균 23.5%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 20.0%를 앞지르고 있으며, 1980~1986년 중에는 전국의 14.9%를 훨씬 앞지르는 19.8%를 유지하여 전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제주지역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국내총생산과 제주지역총생산의 산업별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1次産業의 총생산이 全産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6~1983년 중에는 양쪽이 모두 감소하여 왔으

나, 1984년 이후에는 전국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는데 반하여 제주지역에서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次産業에서는 전국의 꾸준한 증가추세와는 달리 제주지역은 3~5%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次産業에서는 1983년까지 증가해오다가 양쪽 모두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총생산을 산업별 취업자수로 나눈 산업별 1인당 생산액을 계산해 보면, 1차산업의 경우 1976~1983년 동안에는 전국에 비해 제주지역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4년 이후 제주지역이 전국수준을 넘고 있다. 2차산업에서는 전국 보다 제주지역이 낮은 수준이고, 3차산업에서는 제주지역이 전국수준을 훨씬 앞지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全産業을 통해서 1인당 생산액을 비교하면 전국에 비해 제주지역은 1980~1981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3참조)

〔표3〕 전국·제주 산업별 1인당 생산액

(단위:천원)

연도	1次産業		2次産業		3次産業		全産業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1976	582	418	1.169	520	1.417	1.831	990	664
1977	725	558	1.431	1.166	1.712	2.677	1,236	973
1978	933	641	1.793	1.423	2.114	4.021	1.586	1.293
1979	1.177	757	2.215	2.269	2.680	4.479	2.032	1.521
1980	1.147	1.013	2.919	1.672	3.210	3.855	2.443	2.610
1981	1.533	1.186	3.674	3.518	3.671	6.046	2.940	3.455
1982	1.653	1.841	3.810	3.011	4.009	4.007	3.214	2.873
1983	1.914	1.714	3.956	3.655	4.390	5.630	3.553	3.211
1984	2.334	2.417	4.512	3.730	4.791	6.119	4.057	3.800
1985	2.729	3.018	6.125	4.327	5.332	6.487	4.877	4.327
1986	2.907	3.467	6.759	6.198	5.882	6.667	5.406	4.789

자료: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한편, 1976년 전국의 1인당 GNP는 385,500원에서 1986년에는 2,016,700원으로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비해 제주지역의 1인당 GRP는 같은 해에 284,600원에서 1,923,000원으로 연평균 21.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연도별로 1981년의 경우와 같이 증가율이 36.5%를 기록하는가하면 1982년의 경우 처럼 7.0%의 증가율에 그치는 심한 차이를 보여 1次産業과 3次産業 중심의 지역경제가 갖는 所得의 不安定性을 드러내고 있다. (표2참조)

4. 財政

제주도민이 부담한 조세 총액은 1981년에 244억원에서 1986년에는 45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같은 年度 GRP의 5.2%와 4.8%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조세부담율이 그간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또 같은 年度의 國稅와 地方稅 징수액은 각각 152억원과 92억에서 306억원과 150억원으로 늘어나 그간 국세가 2.0배 증가한데 비하여 지방세는 1.6배 증가하는데 그쳐 지방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지방세 稅目 中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은 1981년에 비해 1986년에는 감절 가량 증가하여 세입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나 면허세와 농지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1985년 부터는 담배판매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2배, 소방공동시설세는 3배 늘어났다.¹⁴⁾

제주도(市郡 포함)의 예산규모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1981년에 세입 551억원, 세출 516억원에서 1986년에는 세입 1,071억원, 세출 976억원으로 그간 감절 늘어났다. 또 세출액을 기준으로 地方財政規模가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1981년에는 11%였으나 1986년에는 10%로 약간 감소하였다.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낮아진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표4 참조).

14)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7.

〈표4〉 도시군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연 별 및 시 군 별	세 입		세 출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981	55,123	44,040	11,083	51,611	41,333	10,278
1982	68,361	50,930	17,431	64,060	47,942	16,118
1983	81,851	66,874	14,977	75,322	62,400	12,921
1984	83,897	74,459	14,437	85,585	72,750	12,835
1985	87,294	70,719	16,574	80,748	66,447	14,301
1986	107,124	88,089	19,034	97,619	81,112	16,507
제 주 도	36,751	34,927	1,824	34,694	32,973	1,721
제 주 시	24,889	15,694	9,195	22,257	14,854	7,403
서귀포시	14,662	11,263	3,398	13,263	10,136	3,127
북제주군	16,898	14,269	2,629	14,713	12,323	2,389
남제주군	13,922	11,936	1,986	12,690	10,824	1,865

자료 : 제주도, 「경제통계연보」, 1987.

1981년 지방재정세입액은 551억원으로 그 중 지방세 수입액이 92억원이었고, 1986년 지방재정세입액은 1,071억원에 지방세 수입액은 150억원이었다. 이는 1981년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6.7%에서 1986년에는 14.0%로 감소한 것으로서 그간 지방재정자립도가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道市郡別 일반특별회계과목별 세출결산 상황은 〈표5〉와 같다.

세출액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구성을 보면, 제주도의 일반회계는 절반가량이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비에 지출되고 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중기관리에 대부분 지출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일반회계 가운데 일반행정비가 30%를 차지하고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비의 지출은 일반회계 중 절반 가량을 점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절반 이상이 상수도사업에 지출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 사회복지, 산업경제비에 비슷한 비율로 일반회계를 편성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대부분 배정하고 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일반회계는 다 같이 일반

〈표5〉 일반·특별회계과목별 세출결산상황

회계 별	과 목 별	제 주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북 제 주 군	남 제 주 군
	합 계	32,973(100.0)	14,855(100.0)	10,136(100.0)	12,324(100.0)	10,825(100.0)
일 반 회 계	일반행정비	4,360(13.2)	4,550(30.6)	2,623(26.0)	4,006(32.5)	3,536(32.7)
	사회복지비	4,970(15.1)	3,095(21.0)	2,433(24.0)	1,123(9.1)	1,041(9.6)
	산업경제비	6,660(20.2)	498(3.4)	1,833(18.0)	3,189(26.0)	1,956(18.1)
	지역개발비	7,969(24.2)	3,743(25.0)	2,507(25.0)	3,358(27.2)	3,511(32.4)
	문화·체육비	2,035(6.2)	884(6.0)	209(2.0)	469(3.8)	500(4.6)
	민방위비	285(0.8)	661(4.5)	305(3.0)	125(1.0)	163(1.5)
	지원및기타	6,694(20.3)	1,423(9.5)	225(2.0)	53(0.4)	118(1.1)
	합 계	1,722(100.0)	7,403(100.0)	3,127(100.0)	2,390(100.0)	1,866(100.0)
특 별 회 계	중기관리	530(30.8)	- (0)	- (0)	- (0)	- (0)
	주력사업	141(8.2)	568(7.7)	440(14.1)	663(27.7)	612(32.8)
	의료보호기금	634(36.8)	300(4.1)	100(3.2)	132(5.5)	110(5.9)
	재마을사업지원	417(24.2)	112(1.5)	103(3.3)	118(4.9)	109(5.8)
	상수도사업	- (0)	4,190(56.6)	2,384(76.2)	1,434(60.0)	987(52.9)
	기 타	- (0)	2,233(30.2)	100(3.2)	43(1.8)	48(2.6)

자료: 제주도, 「경제통계연보」, 1987.

1) 주: 1986년 기준, ()내의 숫자는 구성비.

행정비, 지역개발비와 산업경제비에 비슷한 비율로 배정되고 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절반 이상 쓰이고 주택사업에 3분의 1 가량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지방재정은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비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에 주로 지출되고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및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5. 其他

제주도는 한국이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제주지역의 지리적·역사적 여건이 결과지은 독특한 지역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儒敎文化 속에서 形成된 높은 교육열을 지니며, 수없이 계속된 외부로부터의 침탈과 절해의 孤島인데 따른 외부와의 단절, 돌과 바람, 가뭄 등의 재난을 이겨내면서 형성된 배타성, 근면성, 자립성, 절약하는 생활태도와 독특한 토속문화를 간직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제주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¹⁵⁾

또 제주지역은 1次産業의 비중이 就業構造 面에서 全産業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對外 開放的 經濟政策과 市場機能에 依存한 지역개발의 결과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고¹⁶⁾, 외지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였으며, 成長果實의 域外流出을 초래하고 있다. 그간의 제주지역개발은 3次産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외지의 大資本을 유치하여 이루어져온 결과 지역경제성장에 적지 않게 기여하기도 했으나, 他産業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충분치 못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흡족한 성과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¹⁷⁾

15) 趙文富外, “地方自治의 効率化를 위한 住民의 自治意識涵養에 관한 研究”, 「社會發展研究」 제4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8. pp. 42~51.

16) 康志勇, “輸入開放政策에 따른 農業政策”, 「제대신문」, 1987. 11. 16. 2面.

17) 金太永,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재고”, 「제주전문대학 논문집」 제4집, 1982. p. 201.

Ⅲ. 濟州地域經濟의 產業別 現況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을 主導해온 산업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이었다. 1976년의 산업별취업자 구성비가 1차, 2차, 3차산업에 각각 79.6%, 3.2%, 17.2%이었던 것이 1986년에는 58.2%, 3.1%, 38.7%로 바뀌었고, 산업별 주민총생산 구성비가 1차, 2차, 3차산업에서 1976년에는 각각 50.1%, 2.5%, 47.4%이던 것이 1986년에는 42.2%, 4.0, 53.8%로 바뀌어 3차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표3 참조)

1. 1次産業의 現況

제주도의 자연적 여건은 1차산업이 발달하기에 알맞다. 일찌기 제주지역에서는 유채, 고구마, 부업축산, 淺海漁業 등 단순노동 중심의 1차산업이 발달하였고, 자본과 기술,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지면서 감귤, 겨울채소류, 기업축산과 연근해 어업이 확대되어 왔다. 또 근래에는 맥주맥, 화훼, 바나나, 파인애플 재배 등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構造轉換은 生産要素의 價格上昇, 자본과 기술의 부족, 需給調節의 불균형, 社會間接資本의 不備 等 장애요인이 적지않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¹⁸⁾

가. 農業

제주지역은 전체면적의 30% 정도인 545km²가량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농경지의 대부분이 밭으로 논은 9km²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잡곡을 주로 생산하는 작목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감귤과 채소류 등 商品作物 생

18) 金昌中, 金忠憲, “濟州地域主要産業의 發展過程, 現況 및 課題”, 「地域經濟發展패턴과 濟州道の 産業開發展望」, 韓國長期信用銀行, 高麗大學校 經濟研究所, 1984. p. 208.

산이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作物別 경지이용추세를 보면(표6 참조),

첫째, 경지이용율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경지이용율은 1980년의 141%에서 1986년에는 135%로 감소하였고, 1987년에는 142%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1975년의 160% 보다는 낮은 실정이다.

둘째,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이 격감하고 있다. 1975년 47,443ha이던 食糧作物 재배면적이 1986년에는 27,161ha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1987년에는 32,489ha로 다소 증가하였다.

셋째, 特用作物の 재배면적도 줄어들고 있다. 1975~78년 중에는 유채, 참깨, 면화 등 특용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였으나 197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넷째, 채소류 재배면적은 대폭 늘고 있다. 채소류의 급속한 소비증가로 1975년에 2,783ha에 불과하던 채소류 재배면적이 1987년에는 무려 4.5배나 증가한 12,839ha에 달하고 있다.

다섯째, 果實類의 재배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꺾을 포함한 과실류의 꾸준한 소비증가로 1987년의 과실류 재배면적은 18,392ha로 1975년 보다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農耕部門에서의 構造變化는 경작규모별 농가구수에서도 나타나는데, 1976~1987년 중 제주도의 농가구수는 연평균 1,000여 가구씩 줄어들었다. 감소추세를 경작규모별로 보면, 1ha 미만의 농가는 연평균 700여 가구씩 줄어들고 있고, 1~2ha를 경작하는 농가는 연평균 160여 가구씩 감소하고 있어, 주로 영세 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⁹⁾

한편, 제주도는 局地的으로 自然條件이 달라 地域에 따라 相異한 農作物들이 재배되고 있다. 식량작물로는 벼, 보리, 조, 콩 등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표7참조)

벼는 自給自足を 위해 비교적 안정된 生産水準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낮아 최근에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보리는 자금자족을 위해 裸麥을 많이 재배하였으

19)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표 6〉 제주도의 경지이용 현황

(단위 : ha)

연도	경지면적	경지이용면적		식량		작물			특용작물	채소	수원지	과실
		면적	%	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1975	49,499	79,215	160	47,443	2,541	16,898	3,492	10,845	13,667	2,783	51	10,935
1976	49,919	77,208	155	44,931	2,444	16,887	3,086	10,959	11,555	2,581	54	11,504
1977	50,101	76,317	152	40,803	2,078	14,427	2,586	10,446	11,267	2,879	85	11,719
1978	49,981	75,801	151	42,140	1,590	17,709	1,139	7,913	13,790	2,220	53	10,257
1979	50,111	72,988	146	43,797	1,410	19,325	935	9,282	12,846	2,748	27	10,865
1980	50,117	70,853	141	39,144	2,038	15,526	1,492	8,403	11,685	4,384	85	12,135
1981	50,064	71,112	142	39,303	1,769	15,592	1,530	9,523	10,889	5,697	162	14,856
1982	49,924	71,884	144	33,581	1,723	15,310	1,153	7,331	8,054	8,294	246	15,593
1983	49,743	68,826	138	34,355	1,762	14,125	1,058	9,198	8,212	7,572	212	17,062
1984	49,553	70,039	141	31,024	1,374	14,075	1,040	8,068	5,927	9,272	256	17,149
1985	51,028	68,850	139	30,023	1,158	12,765	1,409	7,935	6,756	11,057	289	17,255
1986	54,365	68,788	135	27,161	1,165	11,002	1,656	7,552	5,786	12,914	270	17,384
1987	54,523	77,211	142	32,489	1,205	11,124	2,728	12,123	5,309	12,839	536	18,392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표7〉 주요작물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 %) 백주맥 (대맥)

구	분	논	벼	나	맥	조	랑	메	밀	감	자	고	구	마	맥	주	맥	유	채	참	깨
1973	면적	925	1,515	16,995	4,284	841	643	204	8,866	3,605	9,634	4,347									
	수량	2,973	2,111	29,038	4,948	370	275	3,391	156,528	6,705	12,597	1,597									
1978	면적	696	893	12,508	2,017	288	236	1,207	12,994	5,199	12,331	7,393									
	수량	3,737	721	32,272	3,272	172	137	15,687	336,687	12,685	14,605	3,327									
1983	면적	1,105	657	5,785	581	7,791	366	835	7,377	8,340	9,924	7,260									
	수량	3,714	815	12,380	604	4,207	194	9,940	179,187	17,931	13,421	3,665									
1985	면적	1,158	-	2,949	1,409	7,919	-	-	6,756	9,816	3,765	5,873									
	수량	3,699	-	7,255	1,718	7,968	-	-	45,493	27,092	5,648	1,644									
1987	면적	1,205	-	3,425	2,728	12,123	-	-	5,309	7,699	4,485	5,688									
	수량	3,270	-	9,213	2,331	13,068	-	-	32,667	20,941	7,625	1,081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1) 주 : 1985년 이후 밭벼는 논벼에, 감자는 고구마에, 메밀은 조에 합산함.

나 감귤, 유채, 맥주맥에 밀려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조는 보리와 함께 그루 같이 작물로서 많이 재배되어 왔으나 80년대 이후 생산량이 격감하였다. 콩은 1970년대에는 생산량이 많이 줄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메밀은 1970년대까지는 생산량이 많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공예작물로는 전분생산 원료인 고구마와 맥주의 원료인 맥주맥, 식용유의 원료인 유채와 참깨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표7참조)

고구마는 전분과 주정 원료로서 197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생산량이 늘어왔으나 1970년대 말 이후 밀, 옥수수, 타피오카 등 대체작물이 수입되면서 심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맥주맥은 유채와 재배시기가 같아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유채에 밀려 생산량의 큰 증가가 없었으나 1970년대 말 부터 유채가격이 떨어지면서 급격한 생산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요의 寡占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1987년 부터 맥주맥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유채는 1970년대 말 이전에는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 말에 외국산 콩이 수입되어 식용유 생산을 위한 유채수요가 줄면서 1980년대 이후 감소해 왔다. 참깨는 수확기에 태풍에 의한 피해가 많아 고소득 작물이기는 하지만 별다른 생산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감귤과 채소류, 시설재배작물은 제주지역의 기후여건이 이들 재배에 알맞고 他作物에 비해 소득이 비교적 높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표8참조)

감귤은 1960년대 후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타작물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재배면적이 1975년에 10,930ha에서 1987년에는 17,614ha로 늘었고, 생산량도 81,105%로 증가하였다. 1983~85년 중에는 감귤가격의 불안정으로 재배면적이 약간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1986년 이후 재배면적이 다소 늘고 있고 감귤나무의 盛木化로 감귤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감귤생산량을 種別로 보면 早生橘에 비해 晩生橘이 갑절가까이 더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일시에 홍수출하가 이루어져 감귤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감귤재배로 얻는 粗收入은 地域總生産의 15% 내외로 觀光收入과 더불어 濟州地域의 主要 所得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감귤가격변동을 보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1975년도에 감귤 1kg당 가격²⁰⁾은 180원에서 1987년에는 359원으로 갑절 상승하

20) 1kg당 가격은 당해년도의 조소득을 감귤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함.

〈표8〉 감귤생산량 및 유통처리실적

연도	면적 (ha)	생산량	종별생산량		조수익 (백만원)	유통처리내용			생산량증 가공율(%)
			조생	중단생		생과반출	유동처리내용		
							가공처리	기타소비	
1975	10,930	81,105	28,792	50,281	14,599	70,310	5,857	4,938	7.22
1976	11,566	50,432	19,887	29,604	16,138	39,283	4,591	6,558	9.10
1977	11,710	115,500	38,830	75,995	25,870	97,985	8,167	9,348	7.07
1978	12,089	125,950	42,640	82,630	31,907	101,017	15,833	9,100	12.57
1979	12,909	172,150	56,900	113,900	55,088	140,000	21,500	11,150	12.49
1980	14,094	187,470	60,060	126,140	54,500	154,046	23,798	9,626	12.69
1981	14,764	247,780	80,000	166,180	78,400	205,922	22,740	19,118	9.18
1982	15,500	323,420	93,767	227,444	100,904	264,620	44,159	14,641	13.65
1983	16,975	345,900	126,052	217,371	74,044	295,311	33,059	17,530	9.56
1984	16,975	261,000	72,239	186,679	115,582	222,332	23,810	14,858	9.12
1985	16,969	394,300	136,800	253,600	124,189	313,041	65,659	15,600	16.65
1986	16,958	333,100	126,879	201,581	141,598	278,808	41,458	12,834	12.45
1987	17,614	464,391	180,909	277,070	166,818	372,581	78,310	13,500	16.86

자료: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였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가격은 떨어졌다고 하겠다. 한편 감귤의 유통처리실적을 보면, 1975년 5.857%에서 1987년에는 78.310%로 10배 이상 가공처리량이 늘었으나, 생산량 중 가공처리량의 비율은 7.2%에서 16.8%로 늘어난데 불과하여 生果搬出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격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또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중간상인의 이윤이 과다하여 생산농가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소류는 국민 소득수준의 증가로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기후조건이 겨울채소류 재배에 알맞아 당근, 양배추, 잎마늘 등이 他地域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나 流通費用과 流通마아진이 높은 실정이다. 제주지역은 감귤과 겨울채소류의 主産地를 形成하여 대량모집 및 대량수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모집, 仲介段階의 流通마아진이 높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로 제기된다.²¹⁾

제주도에서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재배작물로는 바나나, 파인애플, 화훼, 금귤 등이 있다. 시설재배는 作物의 生育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작물 선택의 범위를 다양화 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기후조건이 유리하다는 점 등에서 안정된 영농을 가능케 한다.²²⁾

그러나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가격경쟁에 불리하며 생산설비와 생산에 필요한 자본 규모가 크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장기적인 증가가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나. 畜産業

제주지역의 축산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축산물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기업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1981년 기간의 「축산진흥장기계획」에 따라 정부의

21) 姜景璿외, “제주도겨울작물의 유통 및 對日輸出增大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5집(사회과학편), 1983. p. 195.

22) 兪現道, “제주농업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 통권 제80호, 1986. 8. p. 71.

지원과 民資誘致 등이 이루어져 소사육은 농가소득을 늘리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²³⁾

1976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畜産作目으로는 韓牛(고기소 포함), 젓소, 돼지, 닭 등이다. (표9 참조)

韓牛飼育農家は 1976년에 20,504가구에서 1982년에는 10,714가구로 半減하였다가 1983~1985년 기간 중 약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86~1987년에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1987년 현재 12,255가구에서 44,923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그간 사육두수의 증감이 심했던 것은 값싼 외국산 소를 수입, 소의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등 정부의 政策不在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결과 소값 폭락으로 소사육농가가 1980~1982년 중 7,000여 가구나 줄어들었고, 1983년 이후 점차 늘어나던 소사육농가는 1986년부터 또 줄어드는 등 양축농가의소사육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酪農은 1976년에 호주산 젓소 育成牛의 導入에서 비롯된다. 1978년 현재 젓소사육두수는 2,180두이고, 域內 우유자급율은 27%로, 젓소 사육은 당분간 成長可能性이 있으나, 이 지역의 소비시장이 제한되어 있고, 기술수준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陸地의 大企業과의 경쟁이 불리하여 전망이 밝지는 못한 실정이다.²⁴⁾

養豚農家は 1976년에 44,192가구에서 1987년에는 8,878가구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돼지사육두수는 71,561두에서 99,580두로 증가하여 그간 副業的 養豚은 줄어들고 企業的 養豚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養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1976~1987년 중 養鷄農家は 4,551가구에서 939가구로 감소한 반면 飼育鷄數는 191,086두에서 590,526두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돼지와 닭의 사육두수가 증가하는데는 域內消費需要가 所得水準向上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고,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육할 수 있으며 生育期間이 길지 않아 資金回轉이 빠르다는 잇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²⁵⁾ 따라서, 사료공급에 지장이 없는 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축산분야라 할 수 있겠다.

23) 姜珉秀, "제주축산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통권 제80호, 1986.8. p. 86.

24) 姜珉秀, 전제논문, p. 86.

25) 姜珉秀, 전제논문, p. 87.

〈표 9〉 가족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단위 : 가구, 마리)

구분 연도	학		우 ¹⁾		젖		소		돼		지		산		양		닭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호	수	두	수	호	수	
1976	20,504		43,438		14		248		44,192		71,561		350		2,522		4,551		191,086
1977	19,934		43,541		24		365		39,116		60,656		376		1,969		3,863		283,976
1978	19,756		47,729		38		562		37,804		60,084		367		2,185		1,221		456,401
1979	19,585		47,641		69		1,068		39,554		71,962		334		2,170		2,108		495,470
1980	17,638		40,676		128		1,228		31,362		49,442		467		1,430		3,808		322,031
1981	12,452		27,388		76		898		26,556		47,100		357		1,016		1,312		427,980
1982	10,714		28,509		67		916		26,878		54,398		545		1,080		1,295		450,350
1983	11,503		35,548		88		1,284		22,035		66,776		564		2,626		1,608		512,290
1984	12,372		42,007		110		1,456		14,919		63,342		714		4,936		1,247		504,610
1985	15,034		57,173		163		1,605		11,068		72,205		776		6,418		1,232		499,833
1986	13,925		52,195		140		1,632		9,508		80,046		567		3,777		1,397		547,824
1987	12,255		44,923		132		2,180		8,878		99,580		414		3,520		939		590,526

자료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1) 주 : 환우는 고기소를 포함.

한편,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그간 草地造成事業, 飼料生産工場과 축산물처리장 設立 등을 들 수 있다.

초지조성사업은 종래의 粗放的 韓牛飼育形態에서 벗어나 企業的 畜産을 이룩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간 초지조성사업이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으나 소값 파동과 林野에 대한 投機 등으로 인해 畜産業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1986년 현재 개량초지면적은 계획량의 50%인 22,600ha에 머물고 있다.

市販을 목적으로 사료공장이 濟州에 세워진 것은 1977년에 建立된 1개회사로, 양돈, 양계, 축우 및 젖소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1985년 현재 사료생산능력은 年産 27,000%에 불과하여 域內 總需要量 111,000%의 24.3%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域外에서 購入해다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²⁶⁾

域內的 축산물처리시설은 제주축산물냉동처리장, 이시돌 축산물처리장, 제주우유처리장 등이 있으나 域內需要物량을 처리할 능력에도 못미치고 있다.

다. 林業

제주도의 林野面積은 1976년에 108,000ha에서 일부가 목장용지로 전환되어 1987년 현재 97,000ha이다. 이 中 林木地는 65,000ha로 林野面積의 65%에 해당한다. 林木地를 林相別로 보면 침엽수 28,000ha, 활엽수 27,000ha로 비슷한 面積을 차지하고, 混種林은 9,000ha에 불과하여 病蟲害 및 풍해방지, 목재생산증대에 소홀한 실정이다.²⁷⁾

한편, 주요 임산물의 생산실적을 보면, 목재, 표고버섯, 연료, 퇴비원료, 사료, 산나물, 土石類 등이며, 이들 가운데 생산량의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는 것은 사료와 산나물, 토석류 등이다. 특히 표고버섯은 고소득을 보장하는 임산물로서 생산량의 대부분이 수출되어 왔으나, 표고생산에 필요한 原木을 國立公園區域 안에서 求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1978년 73,000kg을 생산한 이후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여 1987년에는 52,000kg을 생산한데 그치고 있다. (표10 참조)

26) 姜珉秀, 전제논문, p. 89.

27)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1988.

〈표 10〉 임산물 생산실적

연 도	목 재 (㎡)	야 생 종 실 (천kg)	표 고 버 섯 (천kg)	연 료 (t)	퇴 비 원 료 (천t)	사 료 (천t)	산나물 (천kg)	土石류 (㎡)	기타 ¹⁾ (천kg)
1976	13,326	2	53	108	1,006	242	96	87,513	4,760
1978	10,816	211	73	81	1,060	128	123	203,088	3,174
1980	6,577	567	73	92	502	220	75	295,212	2,185
1982	8,187	13	68	114	403	64	81	330,597	1,041
1984	5,407	172	61	47	565	208	1,008	311,109	0,04
1986	11,194	11	69	62	630	315	914	703,121	0,41
1987	10,341	12	52	67	624	316	1,004	1242909	0,59

자료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1) 주 : 1984년 이후는 약초생산량임.

라. 水産業



제주도의 연근해에는 난류와沿岸水 등이 흐르고 수심이 얕아 동류와 오징어, 조기, 고등어, 복어 등 多種의 어류와 소라, 전복, 성게, 톳, 우뚝가사리, 감태 등의 갑각류와 해조류가 풍부한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1976년에 12,635가구, 68,941명이던 漁業人口는 연평균 1,500명씩 감소하여 1987년에는 9,672가구, 39,736명으로 그간 43% 감소하였다. 1987년 현재 漁業에 專業하는 家口는 2,165가구이고, 兼업하는 가구는 7,507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된 어업인구는 5,846명, 경영자는 33,530명이다.²⁸⁾ 兼업가구가 많고 피고용자가 적어 域內漁業은 零細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28)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어업의 생산증대는 어선의 성능과 척수 및 수산기본시설의 구비여하에 달려 있다. 1970년 제주도의 어선은 37%의 동력화율을 보였으나 그후 동력화가 꾸준히 이루어져 1980년에는 총 1,338척 중 85%가 동력화되었고, 1987년 현재는 총 1,965척 중 1,731척이 동력화되어 동력화율은 88%에 달한다. 그러나 어선을 규모별로 보면 1970년에 30톤 이상의 선박은 전체의 3.7%였고, 1980년에는 2.4%, 1986년에는 4.3%인 71척에 불과하여 어선의 대형화는 부진한 실정이다. (표11 참조)

〈표11〉 어선보유현황

(단위: 척, 톤)

구 분 연 도	종 별				1톤 미만	1~ 5톤 미만	5~ 10톤 미만	10~ 20톤 미만	20~ 30톤 미만	30~ 50톤 미만	50~ 100톤 미만	100톤 이 상
	동 력 선		무동력선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976	661	4,687	260	277	394	300	110	92	15	2	6	2
1977	726	4,733	262	253	405	336	131	91	15	3	4	2
1978	1,002	6,158	244	160	542	422	144	104	18	4	17	2
1979	1,108	7,091	222	133	238	791	143	104	26	19	7	2
1980	1,134	7,116	204	166	199	833	145	106	28	20	5	2
1981	1,191	7,138	198	155	178	916	134	99	30	23	7	2
1982	1,259	7,889	282	188	260	1,006	124	84	32	21	10	4
1983	1,310	7,599	273	168	261	1,067	109	75	31	25	14	1
1984	1,425	8,295	227	146	241	1,127	122	78	38	30	16	-
1985	1,546	9,704	231	152	242	1,206	151	81	38	41	16	2
1986	1,638	10,787	234	157	247	1,240	170	100	44	53	16	2
1987	1,731	11,747	234	157

자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水産業을 뒷받침할 基本施設들로는 漁港,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共同倉庫, 위판장과 급유·급수시설 등이 있다. 1986년 현재 제주도의 漁港數는 총 99개이나 제주도의 自然的 여건이 不利하여 대부분 적은 규모의 어항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표12>에서 보면 水産廳이 指定한 제1종 어항은 4개소, 제3종 어항 2개소 이고, 道가 指定한 어항은 제2종 어항 10개소가 있고, 나머지 83개소는 小規模의 어항들이다.

〈표 12〉 種別指定漁港現況¹⁾

(단위: 개소)

종 별	계	수산청지정	도 지정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99	6	10	8	7	56	28
제 1 종	4	4	-	1	-	1	2
제 2 종	10	-	10	-	1	5	4
제 3 종	2	2	-	-	-	2	-
소 규모	83	-	-	7	6	48	22

자료: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1) 주: 1986년 현재

또 水産基本施設들을 보면, 1987년 현재 위판장이 8개소에 5,354㎡, 共同倉庫가 16개소에 2,046㎡, 방파제가 16개소에 4,677㎡, 선착장이 5개소에 470㎡, 물양장이 13개소에 1,777㎡, 급수시설이 7개소에 1日 급수능력 840%를 갖추고 있고, 급유시설은 10개소에 9,000%의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 1976년 이후 이들 시설 중 비교적 시설확장이 많았던 것은 위판장과 선착장, 물양장 등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이들의 확장을 따르지 못한 실정이다. (표13참조)

수산물 생산실적을 보면, 그간 어선의 척수가 증가하고 동력화율이 높아지면서 어획량은 1978년에 56,390%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그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1987년에는 43,887%에 머물고 있어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14>에서 보면 어류 생산량이 1978년에는 18,631%를 기록한 후 1981년에는 11,637%으로 격감하였다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1987년에는 15,257%에 이르고 있다.

〈표 13〉 水産基本施設現況

(단위: ㎡, m, %)

구분 연별	위판장		공동창고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급수시설		급유시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길이	개소	길이	개소	길이	개소	1일급수능력	탱크수	저장량
1976	5	1,667	15	1,965	16	2,547	3	59	6	618	4	720	11	6,980
1978	6	1,982	16	2,130	16	2,845	3	59	6	618	4	720	12	7,980
1980	6	2,510	16	2,130	16	3,213	3	59	6	768	4	720	12	8,530
1982	6	2,155	16	2,130	16	3,348	4	171	6	748	4	720	12	8,750
1984	5	2,090	16	2,130	16	3,687	4	395	10	1,174	3	126	12	8,750
1986	9	2,920	16	2,046	16	4,264	5	470	13	1,549	3	590	10	8,300
1987	8	5,354	16	2,046	16	4,677	5	470	13	1,777	7	840	10	9,000

자료: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甲角類와 軟體類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貝類는 1984년의 3.487%를 고비로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고, 海藻類는 1977년 생산량 38.526%를 기록한 후 해결이 현상을 보이면서 감소하여 1987년에 20.621%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14 참조)

한편, 1983~1987년 기간 중 수산물 판매실적은 연평균 3만여 %의 위판량에 300억원 정도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중 어류가 147억원, 연체류가 110억원, 해조류가 48억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²⁹⁾

도내의 수산물 처리시설은 냉동·냉장공장이 9개소에 세워져 있고, 소라와 고등어를 처리하는 통조림공장이 1개소, 찐뚝 가공공장이 3개소, 해조분 가공공장이 1개소, 알긴산 소다공장이 1개소, 어묵을 생산하는 연제품 생산공장이 2개소 등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생산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단축하는 실정이다.³⁰⁾

29)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7.

30)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7.

〈표 14〉 수산물 생산실적

(단위 : %)

구 분 연 도	구분						
	합 계	어 류	갑 각 류	연 체 류	패 류	해 조 류	기 타 수 산 물
1976	46,580	8,674	9	76	2,245	35,453	123
1977	56,390	13,501	24	440	3,627	38,526	272
1978	57,065	18,631	142	114	2,876	35,166	136
1979	39,103	10,519	124	240	2,737	25,442	141
1980	39,564	17,331	135	374	2,254	19,336	134
1981	36,831	11,637	218	635	3,245	20,621	475
1982	29,713	12,529	232	1,045	3,570	11,862	475
1983	36,262	12,640	270	1,748	3,935	16,852	817
1984	44,778	14,894	475	2,525	3,487	22,392	1,005
1985	44,190	14,460	551	2,785	3,391	21,790	1,213
1986	33,955	15,991	546	3,626	1,879	10,312	1,601
1987	43,887	15,257	692	3,621	1,215	20,621	1,481

자료 : 제주상공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2. 2次産業의 現況

濟州地域은 全體産業 中 2次産業이 차지하는 비율이 3~4% 內외에 불과하여 産業 構造에 있어 심각한 不均衡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濟州지역에 2차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게 된 原因은 地理的으로 陸地部와 격리된데 따른 운송비 부담이 많고, 工業用 水가 부족하며, 광물자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GRP 규모가 작아 資本形成이 미약하고, 人口가 적어 技術人力이 부족하며 市場規模가 작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濟州도의 2차산업은 현지에서 原料확보가 가능한 농수산물 加工業이나 역

내 소비를 위한 건축자재, 식품, 사료, 비료, 의복, 가구, 인쇄물 등과 관광객의 수요를 대상으로한 토산품 제조업등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1987년말 현재 제주지역의 제조업체수는 681개업소이나³¹⁾, <표15>와 같이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는 1985년 현재 199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들 업체가 고용한 종업원수는 총 3,860명으로 업체당 평균 19명에 불과하여 매우 영세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100인 미만의 종업원을 두고 있고,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5개 뿐이다.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음식료품 제조업

<표 15> 2次産業 事業體現況

(1985년도)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업 원 수				
	계	5~19인	20~99	100~299	300~499	계	5~19인	20~99	100~299	300~499
총 계	202	150	47	4	1	3,899	1,410	1,585	521	383
기 타 광 공 업 (토석류채취)	3	3	-	-	-	39	39	-	-	-
제 조 업 합 계	199	147	47	4	1	3,860	1,371	1,585	521	383
음 식 료 품	92	56	32	3	1	2,485	662	1,053	387	383
섬 유 의 부	8	7	1	-	-	85	44	41	-	-
나 무 제 품 가 구	9	9	-	-	-	63	63	-	-	-
인 쇄 출 판	15	12	2	1	-	297	101	62	134	-
화 학 석 탄	9	4	5	-	-	201	43	158	-	-
비금속광물(석유·석탄제외)	46	40	6	-	-	554	307	247	-	-
조 립 금 속 기 계	19	18	1	-	-	166	142	24	-	-
기 타	1	1	-	-	-	9	9	-	-	-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7.

31) 제주상공회의소, 「商議現況」, 1988.

체가 92개 업체로 전체의 46%에 달하고, 다음이 비금속광물제조업체 46개, 조립금속기계제조업체 19개 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産業部門別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계산해 보면, 1981~85년 기간중 화학·석탄업이 가장 높은 500~900백만원을 기록하였고, 비금속광물업은 같은 기간에 256만원에서 948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나무제품 및 가구업 등은 부가가치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全體 2차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1981~1985년 중에 418만원에서 726만원으로 그간 1.7배 늘어났다. (표16참조)

(표 16) 산업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¹⁾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1981	1982	1983	1984	1985
계	4.18	5.04	5.14	5.44	7.26
광업	2.61	2.54	2.56	1.24	11.49
제조업	4.23	5.09	5.19	5.48	7.22
음식료품	4.73	5.41	4.23	4.98	7.25
섬유·의복	1.36	2.59	5.15	3.94	4.72
나무제품·가구	2.30	2.23	1.59	2.79	2.73
인쇄·출판	3.96	7.24	11.60	6.18	5.08
화학·석탄	4.97	4.64	12.50	9.71	9.07
비금속광물(석유·석탄제외)	2.56	3.74	4.62	7.43	9.48
조립금속·기계	3.65	3.38	3.93	3.63	4.07
기타	2.23	6.00	11.11	-	1.67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7.

1) 주 : 1인당 부가가치는 각 산업의 부가가치를 그 산업의 종업원수로 나눈 수치임.

제주지역의 제조업은 觀光土産品業, 음식료품업, 화학·석탄업, 비금속광물업, 인쇄·출판업 등 域內에서 원료확보가 쉽거나 域內需要가 많은 경우 등 유리한 여건

이 갖추어진 것을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어³²⁾ 불리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타개하여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제조업 성장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3. 3次産業의 現況

제주도는 자연환경이나 인문적 요소가 특이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훌륭한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3차산업은 관광업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이룩해 왔다. 1987년말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된 3次産業 관련업체는 도매업이 1,566, 소매업 9,909, 건설업 483, 숙박업 3,972, 운수업과 보관업 1,108, 금융업 8, 서비스업 4,824, 부동산 및 기타 2,285개 업체 등이다.³³⁾

가. 觀光資源

제주도는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유산, 산업시설 등이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여 섬 전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주요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영주10경, 계곡, 폭포, 동굴, 奇岩, 기생화산, 動·植物, 해수욕장, 낙시터 등 한라산을 중심으로 섬 도처에 널려있는 자연자원과 삼성혈, 관덕정, 연복정, 항몽유적지, 성읍민속촌, 고인돌, 초가와 주민의 생활모습 등의 인문자원, 목장, 과수원, 어항, 유채밭 등 산업자원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有料觀光地로 지정된 곳 들로는 민속자연사 박물관, 삼성혈, 목석원, 항몽유적지, 표선민속촌, 천제연, 천지연, 정방폭포, 김녕굴과 만장굴, 협재굴과 쌍용굴, 산굼부리, 산방굴사, 안덕계곡, 일출봉, 비자림 등이 있다.

관광지별 관람인원은 안덕계곡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인원이 관광지별로 별 差가 없다(표17 참조). 이들 관람인원이 제주를 다녀간 관광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약 55%이다.³⁴⁾ 따라서 來道 觀光客의

32) 金昌中, 金思憲, "제주지역 주요산업의 발전과정, 현황 및 과제", 「지역경제발전 패턴과 제주도의 산업개발전망」, 한국장기신용은행,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p. 126.

33) 제주상공회의소, 「商議現況」, 1988.

34) 1976~86년 기간 중 천지연 폭포를 관람한 관광객수를 써서 계산하였다. 그 결과 1976~86년 기간에 5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표 17〉 관광지별 관람인원

(단위 : 천명)

구	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합	계	1,039	1,538	2,102	2,286	2,064	2,464	3,315	4,108	4,837	5,726	7,753
민속자연사박물관		-	-	-	-	-	-	-	-	247	606	774
삼성혈		69	92	145	140	148	154	193	324	459	507	553
목석원		-	-	-	-	-	150	225	333	363	302	457
천계연		160	243	328	370	320	354	409	411	383	412	789
천지연		200	295	400	436	378	403	490	565	693	704	841
정방폭포		143	221	311	361	321	341	320	458	505	561	666
김녕굴·만장굴		204	257	352	390	339	377	447	550	601	681	770
혈계굴·쌍용굴		105	163	243	238	208	211	256	385	477	587	680
산골부리		-	-	-	-	-	181	294	383	441	513	611
산방굴사		90	150	199	229	202	209	231	194	139	174	474
안덕계곡		64	116	125	122	97	84	76	40	17	10	13
성산일출봉		-	-	-	-	-	-	374	465	512	560	714
함봉유적		-	-	-	-	-	-	-	-	-	99	303
비자림		-	-	-	-	-	-	-	-	-	10	108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1, 1987.

상당수가 유료관광지를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인바 그 까닭을 알아내고 그에 對處할 方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觀光業

제주도의 관광개발사업은 1970년대 들어서서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고 이를 추진함에 따라 관광기반시설이 조성되고, 관광서비스업이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간 조성된 관광기반시설 중 중요한 것으로는 제1, 제2횡단도로의 개설과 관광진입로의 정비, 공항, 항만의 확충 등이고³⁵⁾,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 유흥음식점, 여행알선업체, 관광기념품판매업소, 유흥장 등도 정비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광지정업체로는 1987년 현재 여행알선업체가 21개, 관광호텔이 14개, 골프장 2개소, 유흥음식점 4개, 종합휴양지 3개소, 토산품점 9개, 관광사진업체 5개업소 등이 있다.³⁶⁾

한편, 제주도를 다녀간 관광객은 1976년에 50만명을 넘어섰다. 그후 1987년 까지 정치·사회·경제가 불안정하였던 1980년과 1981년을 제외하고는 來道 觀光客數가 年平均 15%의 증가율을 계속 유지하여 1987년에는 內國人 160만명, 外國人 15만 등 총 175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다녀갔다(표 18참조). 따라서, 觀光收入도 꾸준히 증가하여 1976년에 67억원이던 것이 1987년에는 1,738억원에 달하였고, 그 결과 1986년 부터는 관광소득이 지역총생산의 15%를 차지하면서 감골소득을 앞지르고 있다.

그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 動向을 보면, 순수관광이 목적인 者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5~9%에 불과하여 내국인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관광객의 60%내외가 個別 觀光客이고 10%내외가 신혼부부로 이루어져 團體觀光客은 20~30%에 불과하다. 또 관광객은 주요 관광대상을 自然景觀, 土俗文化, 土產品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류기간은 3박4일 정도이고, 이들이 불편케 여기는 사항들로는 비싼 물가, 비싼 관광지 입장료, 바가지

35) 高永琪, "제주도관광개발의 발걸음", 「제주도」 통권 제80호, 1986. 8. pp. 99~100.

36) 제주상공회의소, 「商議現況」, 1988.

〈표 18〉 관광객 및 관광수입

연도	관광객 수(명)		관광수입(백만원)		1인평균소비액(천원)	
	내국인	외국인	내	외	내	외
1976	348,918	20,264	6,753	5,233	1,520	75
1977	467,055	33,294	13,003	9,341	3,662	110
1978	612,392	39,256	18,183	13,472	4,711	120
1979	712,947	31,500	24,458	20,048	4,410	140
1980	648,821	20,548	25,997	22,709	3,288	160
1981	682,415	41,825	42,485	34,120	8,365	200
1982	815,831	44,503	62,301	48,950	13,351	300
1983	980,028	44,998	84,351	68,601	15,750	350
1984	1,168,425	48,818	101,213	84,127	17,086	350
1985	1,249,026	73,676	115,717	89,930	25,787	350
1986	1,376,555	115,753	143,755	103,242	40,513	350
1987	1,606,072	152,389	173,791	120,455	53,336	350

자료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요금, 부적절한 음식, 교통불편, 수준미달의 기념품, 불친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⁷⁾

따라서, 제주관광의 동향은 관광객의 대부분이 내국인이고 개인관광객이며 이들은 濟州의 自然과 民俗를 감상하려고 제주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나 物價, 음식, 교통, 기념품, 서비스 등에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이러한 관광패턴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만사항들을 시정하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 運輸業

濟州地域의 주요 운송수단은 自動車, 航空機, 船舶 등이며, 地域經濟의 成長과 더불어 운수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먼저 自動車 운수업을 보면, 市内·外버스와 貨物, 택시, 렌트카 등 운수업체는 1987년 현재 81개 업체이며, 차량면허대수는 총 3,165대이다. 1980년의 59개업체 2,005대와 비교하면 그간 차량면허대수가 58% 증가하였다. (표19참조)

〈표 19〉 자동차 운수 사업체 현황

(단위: 업체, 대)

연 도	합 계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화 물		택 시		렌트카		기 타	
	A ¹⁾	B ¹⁾	A	B	A	B	A	B	A	B	A	B	A	B
1980	59	2,005	10	369	5	152	21	562	17	878	1	30	5	14
1983	81	2,292	12	418	5	176	22	572	30	1,064	1	30	11	32
1986	80	2,866	11	512	5	251	22	675	30	1,285	2	105	17	44
1987	81	3,165	12	563	5	276	22	710	30	1,441	2	135	15	40

자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1988.

1) 주: A는 업체수, B는 면허대수.

이들 운수업체 가운데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은 전세버스, 택시, 렌트카 업체들로서 이는 늘어나는 관광객의 需要에 기인한다. 그러나, 전세버스의 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주말등에는 차량부족으로 관광객 수송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³⁸⁾

37) 金泰保, 許香珍, “濟州地域 觀光所得 殘留效果提高方案”, 「社會發展研究」 제4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8. pp. 94~152.

39) 中央日報, “관광교통수단 태부족”, 1988. 3. 29. 8면.

항공수송능력이 늘어나고 여행객의 기호가 항공운송을 선호하면서 1980년에 42만 명이었던 항공기 이용자가 1987년에는 139만명으로 늘어났다.³⁹⁾ 주요 노선별 항공기 좌석이용율을 보면 1987년 현재 제주~광주 노선이 94%로 가장 높고, 서울, 부산, 대구, 여수와 제주 간의 좌석이용율도 77%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명절, 휴일 등에는 이용객들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관광객의 수송수단 선호경향이 항공운송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利用客이 물리는 주말, 관광성수기, 명절 등에 좌석을 얻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항공수송능력을 늘리는 것이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과 더불어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통하여 화물의 반출·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물은 무연탄, 油類, 비료, 시멘트, 양곡, 목재, 철재, 모래 등 반입되는 화물과 감귤, 활선어 등 반출되는 화물 등이다. 이러한 화물의 증가추세에 따라 화물선의 척수와 톤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선박의 대형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⁴⁰⁾ 또 선박을 이용한 여객의 수송 현황을 보면, 부산, 목포, 완도와 제주항을 각각 연결하는 항로가 주로 이용되는 바, 이들 3개노선을 이용한 여객수는 1987년에 98만명으로 항공기 이용객 139만명의 70% 수준이다. 노선별로는 부산항로가 24%, 목포항로 52%, 완도항로 34%의 비율로 이용되고 있고, 운항 시간이 짧은 완도항로의 이용객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⁴¹⁾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여행객들이 점차 고속운송수단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金融業

한국은행 제주지점의 화폐발행 및 환수현황을 보면, 1976~79년 기간에는 발행액이 환수액을 앞질러 왔으나 1980년 이후에는 환수액이 발행액을 앞지르면서 그 폭이 더욱 벌어져 1987년 현재 발행 및 환수액은 각각 957억원, 1,421억원으로 환수액이 464억원 더 많은 실정이다.⁴²⁾

39)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1988.

40)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1988.

41)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1988.

42) 제주상공회의소, 「商議現況」, 1988.

〈표 20〉 금융기관별 예금·대출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입출금	은				비				행				
		계	일반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계	증가율 (%)	투자신탁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생명보험회사
1983	예수금	1,696	306	820	570	1,604		207	74	229	100	466	75	453
	대출금	1,783	294	1,013	476	1,054		-	59	251	124	372	110	138
1984	예수금	1,833	293	857	684	2,166	32.1	308	114	290	118	585	92	659
	대출금	1,131	276	1,208	646	1,318	25.0	-	115	322	132	456	108	185
1985	예수금	2,225	363	994	868	2,646	22.2	387	216	349	138	758	115	683
	대출금	2,541	297	1,421	823	1,505	14.2	-	156	374	156	531	122	166
1986	예수금	2,707	523	1,203	980	3,622	36.9	670	285	475	203	961	165	863
	대출금	2,607	284	1,546	777	2,021	34.3	5	156	472	210	790	154	234
1987	예수금	3,607	764	1,572	1,271	5,072	40.0	804	483	653	312	1,427	246	1,147
	대출금	2,901	245	1,927	729	2,921	44.5	8	172	633	284	1,229	201	394

자료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1988.

1988년 현재 제주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는 13개 은행에 49개 점포로 이들을 통한 예금과 대출금 총액은 각각 3,607억원과 2,901억원에 이르고 있다(표 20참조). 이 가운데 지방은행(濟州銀行)이 취급한 액수는 예금이 1,271억원, 대출금이 729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83년 이후 예금, 대출금 추이를 보면 1985년까지는 예금보다 대출금이 많았으나 1986년과 1987년은 그것이 역전되고 있다.

〈표20〉에서 보듯이 非銀行 금융기관의 入出金 규모는 1985년을 고비로 금융기관의 入出金を 앞지르고,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의 預受金 및 貸出金 역시 貸出金보다 預受金이 훨씬 앞서고 있어 濟州地域資金의 상당액이 域外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地域資金의 域外流出의 원인은 1970년대의 域外資金 導入에 따른 外地人의 資金還收가 이루어지고 域內의 投資需要가 충족치 못한 결과가 아닌가 보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資金이 域內에 再投資되도록 적절한 企業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金融機關을 통한 貸出金은 1次産業에 37%, 2次産業에 9%, 3次産業에 25%의 비율로 貸出되고 있어 제주지역의 産業構造를 반영하고 있으나 産業構造 改善을 위한 政策的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마. 都小賣·飲食宿泊業

도소매·음식숙박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과 가족노동을 이용하여 손쉽게 설립·운영할 수 있고, 지역인구의 증가 및 소득수준의 향상,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1987년 현재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은 각각 1,566개, 9,909개, 3,972개 업소로 총 15,447개 업소이다.⁴³⁾ 이들을 業態別로 분류하면 法人이 58개, 一般事業者 1,933개, 特例 및 免稅業體가 13,466개 업소이다. 이 중에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86개 업소이며, 종업원은 총 3,897명으로 업체당 평균 21명을 고용하고 있다. 30인 이상의 종업을 둔 업체는 26개 업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觀光基本施設로서 필수적인 宿泊施設 現況은 〈표 21〉과 같다. 1976년의 235개 숙박업소에 3,711개 객실에서 연평균 26개 업소, 593개 객실씩 늘어나 1987년에는 517

43) 제주상공회의소, 「商議現況」, 1988.

〈표 21〉 숙박시설현황

연도	합계		호						여관		숙	
	개소	객실수	소		관		텔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개소	객실수				
1976	235	3,711	10	678	5	532	5	146	73	1,109	152	1,924
1978	255	3,749	4	495	4	495	-	-	96	1,618	155	1,636
1980	314	4,807	4	483	4	483	-	-	154	2,798	156	1,526
1982	365	6,542	16	1,771	7	1,091	9	680	150	3,037	199	1,734
1984	412	6,972	27	1,822	9	1,171	18	651	159	2,772	226	2,378
1986	468	9,010	42	3,271	13	2,451	29	1,120	202	3,435	224	2,304
1987	517	10,237	56	3,961	14	2,278	42	1,683	234	3,967	227	2,309
제주시	324	6,331	34	2,376	7	1,321	27	1,055	116	2,070	174	1,885
서귀포시	97	2,249	8	895	6	830	2	65	63	1,112	26	242
북제주군	24	208	-	-	-	-	-	-	11	118	13	90
남제주군	23	222	-	-	-	-	-	-	12	135	11	87

자료 : 제주상공의소, 「제주경제현황」, 각년도.

1) 주 : 시군별 현황은 1986년 기준임.

개 업소에 10,237개 객실로 증가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 호텔수는 10개에서 56개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숙박시설이 市地域에 집중되어 있고, 觀光客들이 값싼 시설을 찾는 경향을 보이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⁴⁴⁾

바. 建設業

1987년 현재 건설업체는 총 483개 업체로서 法人이 38개, 一般事業者 426개, 特例 및 免稅業體 18개로 이루어져 있고⁴⁵⁾, 3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업체는 5개 업체이다. 이 5개 업체는 1987년 현재 업체당 종업원수가 평균 67명이며, 도금액은 업체당 평균 82억원 정도이다. 따라서 大規模 工事는 자본이나 도급실적의 제한에 묶여 이들 5개업체가 맡을 수 없어 外地의 大企業에 넘겨지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域內 건설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法的, 行政的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1977년 이후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표22>와 같이 연도별로 심한 변동이 있었다. 1977~87년 기간의 연평균 건축허가면적은 42만㎡이다. 1978년과 1979년에는 건축허가면적이 50만㎡를 넘는 건축경기의 호황을 누렸으나 그후 감소하였다가 1983년과 1987년에 건축허가면적이 50만㎡를 넘고 있다. 그간 제주지역 건축경기는 약 4~5년을 주기로 변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제주지역의 건설업은 地域開發事業의 추진, 地域經濟의 規模擴大, 人口의 增加등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전망이 밝은 分野라 할 수 있다.

44) 金泰保, 許香珍, “제주지역 관광소득 잔류효과제고방안”, 「사회발전연구」 제4집, p. 187.

45) 제주상공회의소, 「商議現況」, 1988.

〈표 22〉 건축허가 현황

(단위:棟, ㎡)

연도	합계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문화·사회·기타	
	棟數	面積	棟數	面積	棟數	面積	棟數	面積	棟數	面積
1977	3,017	244,010	-	134,167	-	13,515	-	16,718	-	79,550
1978	3,860	544,248	-	245,483	-	15,084	-	174,078	-	109,603
1979	3,436	524,369	-	245,803	-	2,674	-	154,721	-	123,151
1980	2,959	416,467	-	197,885	-	3,702	-	141,136	-	73,744
1981	2,181	382,545	52	97,731	52	6,671	258	145,764	643	132,379
1982	2,392	294,811	22	109,451	22	4,443	297	81,930	623	98,987
1983	3,402	518,071	20	213,402	20	17,682	352	146,747	969	140,240
1984	2,920	408,314	13	183,556	13	4,198	378	131,177	755	89,383
1985	2,302	368,945	20	104,309	20	5,381	241	114,247	886	145,008
1986	2,993	395,254	22	130,258	22	5,187	320	128,578	1,191	131,231
1987	3,050	522,767	14	154,198	14	7,479	544	230,808	880	130,282

자료: 제주상공회의소, 「商議現況」, 1988.

IV. 濟州地域經濟의 課題

1960年代의 감귤재배붐을 타고 시작된 제주지역개발은 1970년대에 들어 國內景氣가 全般的인 好況을 누리면서 시작된 觀光붐을 타고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로 全體的으로 허약했던 濟州의 經濟的 基盤이 어느정도 다져졌고, 道民의 生活水準도 상당히 향상되었다.⁴⁶⁾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제주지역경제는 지역여건이 지닌 制約要素와 그간의 성장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꾸준하게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여러가지 課題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제주지역이 지닌 制約要素들을 살펴보면, 人口가 50만명에 불과하여 域內의 소비시장이 협소하고, 立地與件이 여러가지로 制約되어 있어 製造業은 그 범위가 극히 일부에 한정될 수 밖에 없게 된다. 1次産業에서도 이러한 制約要素들이 作用하고 있는 바 심한 바람, 農業用水의 부족, 메마른 土壤, 경사가 심한 地形, 自然的 港口條件의 不備, 협소한 市場, 육지부와와의 지리적인 격리성, 자본축적의 불충분, 전문가·기술자·企業家の 부족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3차산업에서도 지리적 격리성이 관광객의 접근을 제약하고, 자본과 전문인력의 부족이 관광기반시설확충, 서비스 개선,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장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1차산업의 경우, 需要水準을 넘는 과잉생산으로 농수산물가격은 하락하고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고,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에 따라 농축산물가격은 폭락하고 作目 선정의 범위는 좁아드는 실정이다. 2차산업에서는 원료확보가 점점 어려워 設備가 遊休化하고 있고, 산업폐기물에 의한 環境汚染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次産業에서는 그간의 관광개발사업이 人的·物的으로 對外依存的이었던 관계로 觀光收入의 잔류효과가 불충분한 가운데 不動產投機를 助長하고, 富의 不均衡 分配를 深化시키고, 관광객의 증가

46) 崔相哲, 전계논문, p. 99.

에 따른 自然毀損과 享樂産業의 증가에 따른 퇴폐문화의 확산 등을 초래하였다.⁴⁷⁾
따라서, 이러한 制約要素와 問題點 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濟州地域經濟의 成長課題로서 提起된다 할 것이다.

1. 地域經濟의 全般的 課題

제주지역은 絶海孤島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공간적 폐쇄성은 물론 사회경제적 孤立 내지 閉鎖性을 지녀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주지역개발을 제주도만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국가적·국제적 차원으로 개발목표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제주지역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中文地區開發이 시작되었다. 그후 濟州 自由港 建設基本構想이 이루어졌으며, 1983년에는 國土開發研究院이 主管이 되어 特定地域 濟州道 綜合開發計劃(案)을 樹立하였다.⁴⁸⁾

이러한 일련의 개발사업추진 등으로 域內의 부족한 人力과 資本이 어쩔 수 없이 域外로 부터 流入되었고 外形的 成長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붐을 타고 들어오는 外地人의 토지매입과 投機, 外部資本投資에 따른 果實의 漏出, 과잉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파괴, 三無의 전통 상실 등은 근래에 들어서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폐쇄적 사회경제가 개방적 사회경제체제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혼란과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조화로운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地域開發에 필요한 人力과 資本의 域外依存度를 줄이는 代案으로서 域內 人力의 育成, 濟州開發株式會社의 設立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濟州人口의 취업구조가 1차산업에 60% 가량 몰려있음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人力이 비능률적으로 生産活動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觀光業, 製造業 等 他産業으로 轉業할 수 있도록 技術教育의 機會를 늘리고, 就業機會를 마련해 주고, 資

47) 崔相哲, 전계논문, pp. 99~100.

48) 崔相哲, 전계논문, p. 101.

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施策이 要請된다. 또 域內 自體財源을 育成하기 위해서는 濟州銀行과 域內 企業人의 出資, 濟州出身 國內外 資本家의 참여 등을 유도하고 外國으로부터의 低利 長期借款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제주지역개발은 中文觀光團地, 城山浦海洋觀光團地의 造成, 自由港建設, 和順港建設 등과 같은 국가적이고 巨視的인 개발구상이 보여주듯이 제주지역개발계획이 지나치게 大型化하여 지역주민의 直接的이고 基本需要 충족적인 개발이 소홀해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개발에 있어서 地域住民을 위한 內需産業의 育成, 濟州地域이 지닌 比較優位를 살릴 수 있는 地場産業의 育成이 要求된다.

內需産業으로서 陸地와의 交通費 등을 고려한 比較優位의 製造業으로는 大分類産業을 기준으로 볼 때 食品료품, 紙類·印刷·出版, 非金屬礦物 그리고 其他 製造業 등을 들 수 있고 小分類産業중에서는 動植物性油, 알콜음료, 청량음료, 貴金屬材料産業 등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⁹⁾ 地場産業이란 對外的으로 比較優位를 갖는 産業을 말하는 것으로 제주지역의 1차, 3次産業은 앞에서 보았듯이 本土에 비해 比較우위를 갖고 있다. (표3참조) 그러나 外國과의 比較에서도 比較우위를 가질 産業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地場産業으로서 比較우위가 높은 産業으로는 對本土 및 對外國 比較우위를 갖는 水産業이 있고, 그 밖에 工藝作物, 채소와 과일류 등이 유리하고 축산, 곡물류, 林産物 등은 比較우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⁵⁰⁾ 한편, 3차산업은 제주지역의 산업별 수요구조와 공급조건 등을 고려할 때 1차, 2차산업을 능가하는 比較우위산업이지만, 3차산업의 대부분이 觀光客에 의한 輸出入이외에는 域外交易이 불가능한 非交易財 産業이며, 觀光産業은 제주지역의 가장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유망한 산업이므로 部門內 産業間의 比較우위 평가는 별로 중요치 않다.

절해고도라는 特殊性 때문에 제주지역은 人的·物的資源의 이동이 어려워 지고 따라서 지역경제의 성장에 적지않은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內·外國과의 接近性을 증대시키고 交通費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課題라 하겠다.

49) 南宗鉉, “濟州地域産業構造의 展望과 投資優先順位”, 「地域經濟發展패턴과 濟州道의 産業開發展望」, 한국장기신용은행,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p. 476.

50) 南宗鉉, 전제논문, pp. 468~471.

제주도를 왕래하는 人的·物的 數量은 지역경제의 成長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여 왔다. 1983년에 항공수송실적은 여객 72만명, 화물 14,000톤이었고, 海運輸送實績은 여객 87만명, 화물반입 147만톤, 반출 58만톤이던 것이 1987년에는 항공수송실적이 여객 146만명, 화물 30,600톤으로 늘었고 해운수송실적도 여객 98만명, 화물반입 181만톤·반출 68만톤으로 늘어났다. 특히, 여객수송에 있어 선박과 항공기 이용추세는 1983년 이전과는 달리 항공기 이용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지역개발의 사실상의 열쇠는 內陸과의 航空手段의 擴充과 費用의 節減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와 육지부 主要都市와의 항공노선의 다양화, 運航回收의 增便, 셔틀(shuttle)路線化, 料金割引이 가능한 傳賃路線化의 가능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⁵¹⁾ 그간 大韓航空의 國內 航空路線 獨占과 企業의 經濟性에 따른 制約이 있어왔지만 앞으로 第2民航이 취항하면 이상의 課題가 어느정도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 1次産業의 課題

제주지역에서 1次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陸地部와의 比較優位面에서 제주지역 경제의 成長은 1차산업을 고려치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그동안 제주지역 1차산업을 이끌어온 감귤업을 비롯하여, 비교적 위가 비교적 높은 채소류, 工藝作物과 水産業, 域內消費를 위한 축산업 등을, 제주지역이 지닌 潛在力을 최대한 活用하여, 活性化하기 위한 課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감귤가공처리시설을 늘리고 감귤가공제품을 多樣化해야 하겠다. 감귤은 他作物에 비해 收益性이 계속 높게 유지됨으로써 그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났고, 재배기술의 보급확대와 樹齡增加에 따른 生産性 向上으로 生産量이 계속 증가해왔다. 이러한 생산의 급속한 伸張은 70年代 중반 이후 계속 需要增加를 앞지름으로써 감귤의 實質價格을 하락시켜 왔고, 代替財인 사과, 배, 감 등의 생산증가와 品質向上으로 수요 감소현상까지 겹쳐 감귤의 실질농가판매가격은 年平均 16.7%씩 급속히 下

51) 崔相哲, 전제논문, p. 103.

落하였다.⁵²⁾ 이처럼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生果需要의 소득 탄력성은 계속 저하되고 있고, 대체재인 사과, 배, 감 등의 생산증대와 품질개선이 보다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귤의 代替財와의 競爭力은 상대적으로 弱화되고 있음⁵³⁾에 비추어 감귤농가판매가격의 安定化는 生果需要의 촉진을 위한 홍보나 流通構造의 合理化 만으로는 充分치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天然飲料消費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감귤주스의 加工處理物量을 늘리므로써 生果供給의 과잉을 방지하면서 감귤價格의 安定 및 農家所得増大의 効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음료생산을 위한 감귤가공시설의 확충은 물론, 감귤즙과 감귤껍질을 원료로 하는 새로운 商品을 개발하여 감귤제품을 다양화할 方案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⁵⁴⁾

둘째, 流通構造를 合理化해야 하겠다.

農畜水産物은 生物이라는 점에서 時間이 흐름에 따라 부패, 減耗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流通費用이 많이 든다. 특히 濟州地域은 陸地部 消費地와의 거리가 멀어 운송단계가 많아지므로 유통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유통비용보다 중간상인에 의한 생산물의 모집, 仲介段階에서의 마진율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농민들이 營農費를 早期에 回收하고 價格不安定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圃田賣買가 一般化된 去來慣行 때문이다.⁵⁵⁾ 이와같은 거래관행은 生産者가 價格情報에 어두워 중간상인들의 價格造作이 紹介하게 되므로 生産자와 소비자 모두가 不利益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농가의 現金需要에 대응한 營農資金의 適期供給과 市場情報의 正確하고 신속한 제공 및 系統組織에 의한 適切한 出荷調節 등 農協機能의 活性化와 함께 生産

52) 金昌中, “감귤의 수요분석모형 설정과 活用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논집」 제 8호, 1983; 金昌中, 金思憲, 전제논문, p. 156에서 재인용.

53) 金昌中, 金思憲, 전제논문, p. 156

54) 高正三外, “제주도산 감귤 발효주 생산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1987.

55) 姜景禧外 “제주도 겨울작물의 유통 및 對日수출증대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5집(사회과학편), 1983, p. 195.

者組織의 育成 등을 통하여 지나치게 많은 유통비용과 利潤을 줄여야 하겠다.⁵⁶⁾ 또한 유통마아진을 줄이는 것은 불가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生産者·消費者 모두의 利益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政策政局의 需要豫測과 生産量調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消費者團體도 生産者組織과 긴밀한 協助가 있어야 하겠다.

셋째, 새로운 商品을 개발해야 하겠다.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로 제주지역의 특유한 농축수산물을 觀光商品으로 개발할 가치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감귤, 파인애플, 표고버섯, 꿀 등이 觀光商品으로서 호평을 받아왔으나 감귤이나 파인애플은 그 稀少性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특유의 향취와 맛을 간직할 수 있고 重量이 적은 것을 발굴, 재배기술과 함께 보급하는 方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외국산 바나나의 수입과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바나나 재배시설을 觀光商品作物을 재배하는데에 轉用하는 方案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겠다.⁵⁷⁾

넷째, 遊休資源을 開發·活用해야 하겠다.

제주도의 林野와 牧場用地를 합친 面積은 地域全體面積의 62%에 달하고 있으나 임야면적의 65%가 林木地이고, 牧場用地의 33%가 草地造成이 되는데 불과하여⁵⁸⁾ 大部分의 土地가 經濟性이 매우 낮은 상태로 利用 또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광활한 土地資源을 經濟性이 큰 産業部門으로 轉用할 수 있도록 中山間道路의 改設, 用水開發, 電氣의 供給 등 物的 下部構造를 확충하고, 草地造成, 經濟性 있는 樹木의 植栽, 산나물 및 약초재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제주도는 水溫이나 水質이 水産養殖에 알맞고, 水産資源이 비교적 풍부하여 수산업은 제주지역에서 對國內外的으로 비교우위가 가장 높은 産業으로 나타나고 있으나⁵⁹⁾ 水産基本施設과 漁港, 漁船의 大形化 등이 不充分하고 漁撈技術水準이 낮아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전통적 직업관이 어업을 천시하고, 어선의 大形化가 미흡하여 조난

56) 金昌中, 金思憲, 전제논문, p. 159

57) 韓海龍 外, "바나나 재배시설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代替作物 선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1987. p. 43.

58)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제현황」, 1988.

59) 南宗鉉, 전제논문, p. 469.

사고의 위험 등이 있어 어업을 기피하는 住民意識도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제거하고 水産業을 成長시키기 위한 政府의 적극적인 지원이 行政的·財政的·教育的인 面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遊休資源의 개발·활용은 物的 下部構造를 확충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作物을 발굴·보급하며, 生産性向上을 위해서 生産技術을 개발·보급하는 데서 가능해질 것이다.⁶⁰⁾

다섯째, 外國産 農産物의 輸入을 抑制해야 하겠다.⁶¹⁾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외국의 수입개방압력을 피해 수출 주도형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에는 좋으나 대부분 영세농가로 이루어진 한국의 농업구조로 볼 때 농촌경제를 심히 不安定하게 한다. 그간 경제성장의 基本戰略을 제조업 육성을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두어 한국경제의 對外依存度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미국 등 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부딪쳐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이 날로 증가하였고 농촌경제는 심각한 침체상태에서 허덕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전분, 酒精, 食用油의 원료인 고구마, 맥주맥, 유채, 콩 등과 감귤, 소, 바나나 등이 외국산 代替財의 수입으로 인해 심한 가격불안정을 겪어 왔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간·都農間·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國家形成(Nation building)을 해치는 政治的 문제로 과급될 수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이나 수출시장개척 등을 위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야 할 경우 이를 국내농산물가격에 連動시켜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더구나 제주지역의 제조업은 입지 조건상 이러한 농수산물가공업을 중심으로 영세규모로 이루어져 있어서, 域內製造業의 육성이란 차원에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억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채와 같은 作物은 觀光資源化 및 양봉업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3. 2次産業의 課題

제주지역의 2차산업은 원료확보가 域內에서 가능한 農水産物加工業, 市場接近性 이 강한 乳製品, 配合飼料, 밀가루제품, 酒類, 연탄, 콘크리트제품, 인쇄, 제2차금

60) 金昌中, 金思憲, 전계논문, pp. 161~168.

61) 金昌中, 金思憲, 전계논문, pp. 169~170.

속제품업 등과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土產品製造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감귤, 油菜, 水産物 등 농수산물 가공업은 이 지역 농산물의 需要를 安定시켜주고, 地域民의 就業機會를 제공하며, 기타의 모든 제조업이 他 産業에 미치는 前後方 連鎖效果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그 육성책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관광지적 특성이나 自然保護라는 관점에서 보면 工業立地를 特定地域으로 局限시켜야할 必要가 있다. 이와같은 工業團地의 造成은 用水, 전력·道路 등의 社會間接資本의 共同利用으로 製造業의 成長을 위해서나 公害要素를 集中管理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의 파괴를 줄일 수 있는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立地 制限과 더불어 고려할 문제는 원료의 集荷가 편리하고, 用水·勞動力 등의 공급이 充分하여, 觀光地와 인접하지 않고, 地域全體의 均衡開發을 이루는데 알맞는 곳을 선정하는 일이다.⁶²⁾

한편 제주지역의 2차산업의 비중이 全體産業의 3%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製造業을 물색하여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1차산업이 갖는 成長의 限界와 觀光業이 부딪치게 될 공급능력의 한계에 대비해서라도 觀光産業에 害를 미치지 않을 無公害 高附加價値의 勞動集約的 製造業을 발굴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安定的 成長을 위해 반드시 모색되어야할 과제라 하겠다. 더불어서 기존의 제조업들도 생산기술을 향상시켜 對外競爭力을 높이므로써 그 規模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研究機關과의 協力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3次産業의 課題

제주지역의 3次産業은 觀光産業을 중심으로 成長하여 왔다. 따라서 社會間接資本의 擴充도 觀光客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공항, 항만시설의 확충에 치중되었고, 산업도로의 개설, 포장, 用水의 개발 등은 약간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국 평균수준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보율은 뒤떨어지지 않은 상태인만큼 地域住民의

62) 金昌中, 金思憲, 전계논문, p. 165.

便益은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供給能力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연휴기간 등에는 항공수송능력이 모자라고, 大型여객선의 接岸이 불가능하며, 전체도로의 포장율이 50%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중산간지대를 잇는 도로의 개설이 미흡한 실정이며, 가뭄에 따른 用水不足 등은 이들의 供給能力을 더 늘려야할 必要性을 말해준다.

그간 추진되어온 제주관광개발의 문제점들로서 지적되는 것을 보면, 단조로운 觀光路線, 自然資源의 훼손·오염, 鄉土性을 잃은 開發, 지나치게 大形化한 개발사업 추진, 多樣性 및 活動性 있는 관광상품개발의 미흡, 관광자원양성의 소홀, 관광홍보 활동의 부족, 숙박시설의 市地域 偏在 및 지나친 高級化와 多樣性의 결여, 관광알선 업체제의 영세성, 관광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 있는 개발의 미흡, 住民參與機會의 不充分 等이다.⁶³⁾ 이 밖에도 관광객의 증가는 外來文化의 流入을 초래하여 제주 지역의 향토성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향락산업의 증대로 퇴폐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외지인의 土地投機 등이 심해지면서 地域住民의 收容能力이 限界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⁶⁴⁾ 따라서 제주지역관광산업의 成長을 위해서는 金融面에서 外地로 流出되고 있는 資金을 濟州開發株式會社 등을 設立하여 域內에 投資토록 유도하고 地域住民의 地域開發事業에 대한 參與機會를 늘려나가고,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갈 多角的이고 深層的 研究가 이루어져 効果的인 代案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學校와 社會教育機關들은 관광산업의 중요성, 鄉土文化의 보존·啓發의 必要性 等を 이해시키고 愛鄉心을 生活化할 수 있도록 教育活動을 強化해야 하겠으며, 觀光産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제주전통문화를 재현, 보존, 보급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3) 金太永, "濟州道綜合開發에 대한 再考", 「제주전문대학 논문집」 제4집, 1982. pp. 172~187.

64) 金昌中, 金思憲, 전계논문, p. 217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은 지난 10여년 간의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추세와 현황을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향후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課題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제Ⅱ장에서는 제주지역경제의 현황을 全般的으로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제주지역경제의 産業別 현황을 1차, 2차, 3차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제주지역경제의 全般的, 産業別 現況을 통해서 파악된 問題點들을 타개하여 向後 濟州地域經濟의 成長을 지속키 위한 基本的 課題들을 全般的 및 産業別로 提示하였다.

먼저, 제주지역경제의 全般的 現況을 보면,

(1) 人口는 50만명 정도이고 인구증가율은 전국수준을 약간 넘고 있으며, 취업인구는 1차, 3차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2차산업 인구는 극히 적다. 또 1차산업인구가 3차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2) 제주지역에 비교적 풍부한 부존자원은 토지와 觀光資源, 水産資源 등이며 地下資源은 全無한 실정이다.

(3) 濟州의 地域總生産은 全國의 國民總生産의 1% 정도이고, 그 成長率은 1976~86년 중 年평균 23.5%를 유지, 全國의 國民總生産의 年평균 成長率을 20.0%를 상회하는 고도성장률 이룩하였으며, 産業別 1인당 生産액은 1차, 3次産業에서 전국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4) 地方政府의 財政 規模는 지역총생산의 11% 수준이며, 예산의 절반정도가 經濟開發을 목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5) 기타 제주지역은 독특한 文化를 간직하고 있고, 1차산업의 비중이 큰 가운데 開放化 政策으로 인해 농촌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外地資本을 도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제주지역경제의 産業別 現況을 보면

(1) 濟州의 自然的·人文的 環境與件上 比較우위를 갖는 1차산업부문은 감귤, 겨

을채소류, 시설재배작물 등의 농업부문과 수산업부문이다. 농업부문에서 식량작물은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축산업과 林業 등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별다른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감귤, 겨울채소류, 시설재배작물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면서 공급과잉과 유통구조의 불합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수산업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수산기반시설과 어항의 불충분, 어선대형화의 미흡, 水産資源의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

(2) 제주지역의 2차산업은 이 지역의 立地條件이 유리한 農水産物加工業, 域內需要로 規模經濟가 가능한 음식료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과 土産品業 등이 立地해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다. 기타 여러가지 제조업은 立地條件의 不備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3) 관광산업은 제주도의 自然的·人文的 環境이 有利하여 빠른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잠재성이 밝은 부문으로, 제주지역의 3차산업은 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6년에 50만명을 넘기 시작한 年間 관광객 來道人數는 1987년에 170만명을 넘고 있다. 1986년 이후 관광소득은 GRP의 15%를 상회하고, 그간 최고의 收入을 기록해온 감귤소득을 앞지르고 있다. 운수업, 금융업, 都小賣·飲食宿泊業 等도 감귤소득의 증가, 관광산업의 成長 등 지역경제가 커짐에 따라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제주지역경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전국수준을 넘는 高度成長을 유지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서도 전국수준을 훨씬 넘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人的·物的인 여러 制約要素와 成長의 結果로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적지않은 관계로, 향후 제주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樂觀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課題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 對外依存의인 人的·物的資源을 自體的으로 조달하기 위해 專門人力을 양성할 研究機關과 교육기관을 늘리고, 自體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개발주식회사와 같은 地域企業을 設立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여건에 맞는 農工團地의 육성으로 農漁民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산업구

조를 개선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

(3) 제주지역경제의 취약요인 가운데 대표적인 對内外國과의 接近性を 늘리기 위해 항공 등 수송수단을 충분히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

(4) 1차산업의 성장과제로는, 農水産物加工施設을 늘리고 加工製品을 多樣化하며, 農畜水産物의 流通構造를 合理化하고, 새로운 農林水産物을 발굴·보급하며, 中山間 遊休地를 개발·활용하고, 水産資源의 枯渴防止와 水産養殖에 힘쓸 필요가 있다. 政府는 行·財政的 支援과 物的 下部構造의 擴充에 힘쓰고, 農畜産物 輸入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5) 2차산업의 성장과제로는, 適地에 工業團地를 조성해야 하겠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무공해 高附加價値의 勞動集約的 제조업을 誘致하는 한편, 製品의 質을 높이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

(6) 3차산업의 성장과제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힘써야 하겠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開發事業을 推進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전통적 要素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動的이고 多様한 觀光상품을 개발하며, 觀光서비스의 개선과 觀光객 유치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

結論的으로 濟州地域經濟는 「地域經濟」가 갖는 一般的 制約要素와 「濟州地域」이 갖고 있는 特殊性에 기인한 적지않은 問題點과 課題들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므로 向後 濟州地域經濟를 지속적으로 成長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 및 과제들을 풀어나갈 具體的이고 實現可能한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本 研究는 극히 限定된 資料를 利用하였고, 研究者의 識見이 貧弱하여 具體的이고 深層的인 研究가 되지 못하였음을 밝히면서, 向後 더욱 實證的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구체적이고, 實現可能한 濟州地域經濟의 成長方案을 마련하고 推進하여 살기좋은 濟州道를 建設하는데 住民 모두가 參與할 것을 提議한다.

그간 研究者를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 姜景璿 外. “제주도 겨울작물의 유통 및 對日輸出增大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5집(사회과학편), 1983.
- 康珉秀. “제주축산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통권 제80호, 1986. 8.
- 康志勇.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업정책”. 「재대신문」, 1987. 11. 16.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각년도
- 高有峰. “제주수산업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통권 제80호, 1986. 8.
- 高永琪. “제주관광개발의 발걸음”. 「제주도」통권 제80호, 1986. 8.
- 高正三 外. “제주도산 감귤 발효주 생산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1987.
- 國土開發研究院. 「地域分析을 위한 計量的 接近方法」, 1981.
- _____.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案)」, 1985.
- 金文瑄. “제주도 산업구조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발전연구」창간호.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5.
- 金昌中, 金思憲. “濟州地域主要産業의 發展過程, 現況 및 課題”. 「地域經濟發展패턴과 濟州道の 産業開發展望」, 韓國長期信用銀行, 高麗大學校 經濟研究所, 1984.
- 金泰保. “地域經濟開發을 위한 自主財源의 擴充方案”. 「社會發展研究」창간호.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5.
- _____. “濟州地域經濟의 구조적특성과 산업개발전략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8집, 1984. 6.
- 金泰保, 許香珍. “濟州地域 觀光所得 殘留效果提高方案”. 「社會發展研究」제4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8.
- 金太永. “濟州道 綜合開發計劃에 대한 再考”. 「제주전문대학 논문집」 제4집, 1982.
- 南宗鉉. “濟州地域産業構造의 展望과 投資優先順位”. 「지역경제발전패턴과 제주도의 산업개발전망」. 한국장기신용은행,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 宋丙洛. “地域經濟發展패턴의 國際比較分析”. 「지역경제발전패턴과 제주도의 산업 발전전망」. 한국장기신용은행,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 _____. 「韓國經濟論」. 박영사, 1986.
- 吳現道. “제주농업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 통권 제80호, 1986. 8.
- 全國經濟人聯合會. 「'87韓國經濟年鑑」 통권 제22호, 1987.
- 濟州道. 「濟州統計年報」, 각년도.
- 濟州商工會議所. 「商議現況」, 1988.
- _____. 「濟州經濟現況」, 각년도.
- 趙文富, 夫萬根, 申幸澈, 梁永哲. “地方自治의 効率化를 위한 住民의 自治意識 涵養 方案에 관한 研究”. 「社會發展研究」 제4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8.
- 車相弼. “우리나라産業의 雇傭構造와 技術集約度”. 「經濟研究叢書」 제171호.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中心, 1986.
- 崔相哲. “濟州地域經濟發展過程 및 現況”. 「지역경제발전패턴과 제주도의 산업개발 전망」. 韓國長期信用銀行, 高麗大學校 經濟研究所, 1984.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각년도.
- 韓海龍 外. “바나나재배시설의 경제적활용을 위한 代替作物選定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1987.
- 洪起容. 「地域經濟論」. 박영사, 1985.

ABSTRACT

The Status Quo and Problems on
Cheju Regional Economy

Kim Jong-ho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fessor Park Yong-gyung

This study is aimed to find out the problems on Cheju Regional Economy by examining the status quo on Cheju Regional Economy both in general and in each industry for the last ten years from 1976 to 1986. In order to examine upper contents the following reference materials were used; 「The Status Quo on Cheju Economy」 and 「The Statistical Yearbook of Cheju」, etc.

The status quo on Cheju Regional Economy in general and in each industry is as follows; The population in this region is only about five hundred thousand, so the scale of market in this region is a very small one. Its land and climate is suitable for agriculture and the sea for fisheries, the scenery for tourism. But this region is wholly short of underground and water resources to develop manufacturing industry. The Gross Regional Product in Cheju Region is no more than 1.1% of the Gross National Product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ate of growth of Cheju Gross Regional Product has been recorded 23.5% yearly mean for the last ten years. There are many kinds of folk custom and these custom have been contributed to Cheju tourism industry. The opendoor

and the developmental policy by the central government have made great progress to the economy of Cheju Region and the other hand they have had bad influences.

While the products of tangerine, winter-vegetables and house-growings go on increase at a high rate, their overproduction and irrational circulation structure are problems to be solved.

The production of the agriculture in the other fields and the livestock are on decrease due to the absence of the agricultural policy. In spite of the higher condition for the fisheries in this region, it is not on high increase due to the draining resources, the poor equipments of the vessels and the ports, etc. Because of the limited conditions of capital, the shortage of technical expert and the narrowness of market, the secondary industry in this region is composed of the processing industries of the farm products, marine products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the regional demands. Tourism centered the tertiary industry is on increase at a higher rate. Between 1976 and 1987 the number of the tourists who have visited this region has been increased at the rate of 15% yearly mean, so the number put a record one million and seven hundred thousand persons in 1987 only. With the increase of Cheju regional economy the other sections of the tertiary industry such as accommodation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is constant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status quo on Cheju Regional Economy, the followings are showed as the problems that should be resolved.

- (1) Human, material resources and accumulation of capital should be secured sufficiently in this region as much as possible.
- (2) Transportation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for the enlargement of access to the outside of this region.
- (3) It is necessary to make better and to rationalize the circulation structure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and at the same time the import from foreign countries should be restrained in order to protect home industries.

(4) We should expand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of the farm products so as to diversify the demand and establish the industrial complex at a proper place.

(5)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ocial overhead capital, to introduce the ultramodern industries and to diversify the goods of tourism.

(6)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development works should be expanded and the local custom of this region should be preserved without being ruined by development and progress of tourism.

